

일본 아스카지역의 추정 백제조경유적에 관한 사례연구

김동찬 · 안봉원

경희대학교

Case Study on the presumed Landscape Architectural Vestige of Baek Je in Aska Region, Japan

Kim, Dong-Chan · Ahn, Bong-W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ere is not enough excavation examples and bibliographies to study the garden of Baek Je as the ancient landscape architecture style.

This study was to seek the ancient Japanese gardens which had a great concern with Baek Je in order to surmount the limitation in the study on Baek Je's Gardens.

As the result, there were founded the three ponds and one garden facility in ancient Japanese gardens focused on Aska region.

The traces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of Baek Je style were founded in the pond form and rubble masonry and such like.

This study was the first trial to the study on the garden of Baek Je style in Japan. And excavation examples which had a concern with Baek Je will be more in Japan. So more study is needed.

I. 서론

문화의 본질이 가치의 창출과 증대라는 목적 하에 자연을 조작하는 것에 있고, 하나의 문화는 내부적으로 통합된 나름대로의 類型을 이룬다고 보면, 정원도 일종의 문화유형으로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정원문화를 구성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類型은 한 시대, 한 지역에 누적된 공유형태로서 나타날 때 전통문화를 이루게 되며, 이것은 또한 문화적 전통성을 계승하거나 복원 또는 재현함에 있어서 標準이 되는 基本형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정원에 대한 시대별, 양식별로 基本형에 대한 典型的인 定義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準據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와서 전통정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서구화의 영향으로 문화적 맥락과 고유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의 반동으로서 우리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¹⁾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개괄적이고 개별적이며, 그나마 자료취득이 용이한 朝鮮朝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정원은 '大東史綱' 卷之一檀氏朝鮮紀의 康子條에 나타나는 魯乙王의 일 것이다. 後漢時代의 '說文解字'에는 果를 심는 곳을 園이라 하고 채소를 심는 곳을 圃라 했으며 禽獸를 키우는 곳을 라고 했듯이, 魯乙王이 즉위하면서 처음으로 園을 만들어 짐승을 키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원에 園池를 조성한 최초의 기록은 「三國史記」의 辰斯王 七年(391年)條 내용이다. 즉 궁궐을 증수하고 못을 파고 그 흙으로 인공동산을 만들어 기이한 날짐승과 화훼를 길렀다는 것이다.(春正月, 重修宮室 穿池造山 以養奇禽異卉.) 이후 백제는 정원문화를 이루게 되었고, 園池를 축조하는 백제의 조경기술은

일본으로 전해져²⁾ 오늘의 일본 조경문화를 싹트게 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우리의 造景史에 있어 선진조경문화를 가진 백제의 조경에 관한 연구는 宮南池 등 현재까지 발굴되어진 백제조경유적의 사례가 많지 않아 일정한 한계가 있어 왔다.

백제 정원의 특성과 그 基本形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례들을 발굴해 내고 해석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제한된 국내사례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백제와의 교류가 빈번하였던 고대 일본의 作庭에 대한 백제의 영향을 연구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백제정원의 실체를 다각적으로 구명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고대일본정원의 유적에 관한 사례를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백제정원의 복원 및 재현에 있어서 고증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석에 의한 전통정원의 현대화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자 하며, 이는 백제조경양식의 국외사례 발굴의 의의도 지닌다고 할 것이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백제는 고구려 건국후 19년뒤에 朱蒙(東明王)의 아들 溫祚가 河南 慰禮城에서 開國한 이래 31代 678년 동안(B.C 18~A.D.660년) 지속해 온 국가로서, 이 시기는 중국의 前漢 武帝 鴻嘉 3年에서 高宗 龍朔 3년에 해당되며 일본의 垂仁天皇 12년에서 濟明天皇 7년에 해당되기도 한다.

일본에 있어서의 기록에 의한 作庭의 始初는 推古天皇 20년(612년)이다³⁾.

日本書紀에 의하면 山岳之形을 잘 만드는 백제인 路子王이 궁궐 南庭에 須彌山 형태와 吳

1) 환경과 조경 (1993), 특집/조경, 전통과 창조, 환경과 조경, 39 : 44 - 79

2) 「日本書紀」, 推古天皇 20年條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인 路子王은 일본 궁궐 南庭에 須彌山과 吳橋를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3) 牛川喜幸, 古代庭園の遺構・平面圖 : 119

橋를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바, 일본정원의 발상은 7세기초에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한 이후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망명 또는 이주해간 사실이 있다⁴⁾. 따라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7세기 전후로 보았으며, 공간적 범위로서는 백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다고 알려진 일본의 奈良縣 明月香村 지역에 국한하여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원지를 중심으로 한 조경유적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연구대상

구분	유적 이름	조성년대	소재지	유구
宮園池	小墾田宮 園池	7C 초	日本國 奈良縣 明日香村	定形池+石組溝
	鳥生遺跡 園池	7C 중	日本國 奈良縣 明日香村	方池
	石梯遺跡 園池	7C 초	日本國 奈良縣 明日香村	方池
石假山	瀬淵山石	7C 중	日本國 奈良縣 明日香村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고대 일본정원에 대한 사례연구이므로, 유적 하나 하나의 특징적인 사실과 백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서술에 연구의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한다.

서술의 형식은 후속연구에서 백제정원의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하고 일반화하는데 편리하도록 위치, 조성시기, 형태와 규모, 기능과 배치, 조성방법 등의 내용으로 통일한다.

백제정원과 관련된 「三國史記」, 「日本書紀」 등의 고문헌 내용과 유적에 관한 발굴보고서·논문·실측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을 국내 백제조경유적 및 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백제정원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그러나 백제정원에 대한 기록이 「三國史記」

등의 고문헌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을 뿐 作庭記와 같이 정원의 조성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전무하므로 발굴된 遺構의 물리적인 구조와 형태에 의해 백제정원의 정체를 추론하는 형식을 갖게된다.

Ⅲ. 결과 및 고찰

1. 小墾田宮의 園池

1) 위치

小墾田宮은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豊浦辰巳田 12-2 번지 外橿原市 和田町 古宮 254번지의 일대에 추정되고 있으며, 飛鳥지역에 본격적으로 조성된 궁전이다. 즉 飛鳥의 무대에 등장하는 최초의 천황인 推古女帝가 甘樞丘의 風蒲宮(592-603년)에서 小墾田宮(603-628년)으로 옮겨 말년까지 治世했던 곳이다.

2) 조성시기

(그림-1)에 나타나는 주요 遺構의 변천상황은 다음과 같다⁵⁾.

즉, 6세기 이전에 조성된 것은 SD068이며, 池(SG070)와 小溝(SD060), 幹線水路(SD050) 및 돌바닥(SX065)은 7세기 초두에 조성되었다가 중엽에 매몰되어졌으며, 나머지 SD069등은 8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다.

3) 형태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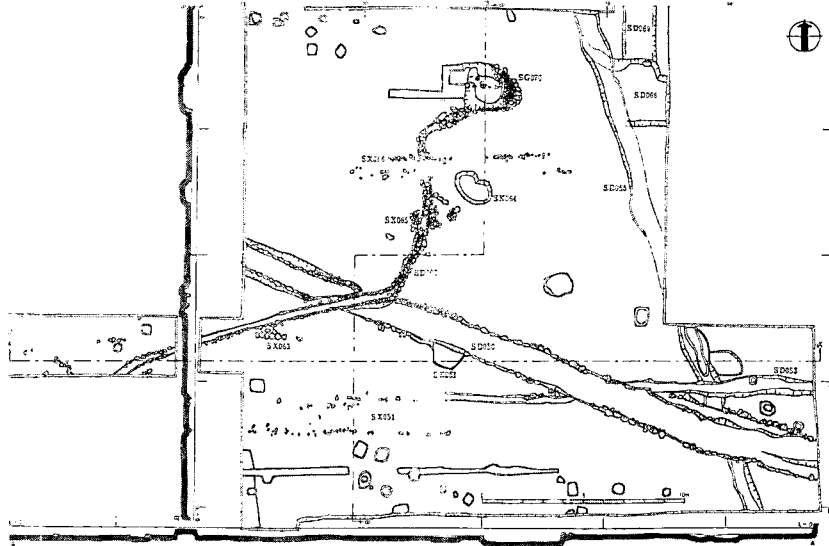
小墾田宮의 원지는 玉石組의 不定形池와 自然川을 모방한 S字 모양의 완만한 커브를 그리는 玉石組 小溝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⁶⁾, 池의 규모는 동서 2.8m, 남북 2.4m, 깊이 0.5m이며, 小溝는 폭 0.25m, 깊이 0.2m, 연장 25m

4) 坂本太郎, 家永三郎, 井上光貞, 大野晋 校註(1967), 日本書紀 上, 岩波書店: 360 (天智天皇 4年條에는 400여명, 5年條에는 2000여명, 8年條에는 700여명이라고 하였음)

5) 奈良 國立文化財 研究所(1976), 飛鳥·藤原宮 發掘調査報告1, - 小墾田宮 推定地·藤原宮의 調査 -, 奈良 國立文化財 研究所 學報 第 27冊: 19, 23

6) 路子工이 作庭활동을 하던 동시대에 만들어진 小墾田宮의 推定地에서 발견된 돌포장의 池와 蛇行하는 玉石溝는 백제인의 센스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飛鳥資料館(1991), 飛鳥の源流,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8



(그림 1) 推定小墾田宮跡遺構圖

에 달한다. 또한 서남쪽 흐름의 小溝와 만나는 서북쪽 흐름의 간선수로에 있어서는 수로내측의 북벽과 남벽간의 간격은 1.5m이고, 깊이는 약 0.3-0.4m이며 연장 45m에 달한다.

4) 기능과 배치

정원과 동시대에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건물(16.80×5.40m)의 바로 전방인 남쪽 20m 지점에 원지를 배치한 점과, 推古天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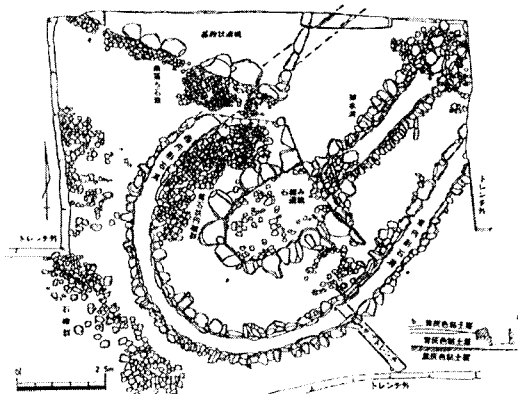
시대에는 백제인 路子工이 飛鳥의 園池 作庭에 깊이 관계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등으로 미루어 볼 때 宮園의 일부로서 순수 정원의 기능을 가졌으리라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池와 溝가 결합된 구조적인 특징과 동일한 부근의 上之宮園池 (그림 2)의 기능인 祭祀의 場으로 추정되고 있다⁷⁾.

5) 조성방법

●池(SG070)

池의 바닥에는 돌을 깔지 않은 모양이며, 內壁에는 화강암·안산암을 주로 한 飛鳥川の 河原石을 쌓아올렸다.

池의 남쪽벽은 수직에 가깝게 구축하였고, 동쪽벽은 완만하게 경사지게 하였다. 池의 서남쪽 모서리에 玉石組인 小溝가 연결되어 있고, 池의 남쪽벽의 石組는 小溝의 남쪽 호안측 석과 그대로 연장되어 池의 벽과 연결되게 하였다. 玉石을 세워 놓은 이 石列은 수평으로 나란하지 않으며 동쪽부근에서 약간 내려와서는 池의 벽아래 가장자리를 구획하고 그 위에 돌을 쌓아올려서 호안을 만들되 동쪽으로 갈수



(그림 2) 上之宮園池遺構圖

7) (財)櫻井市文化財協會(1990): 上之宮遺跡第5次調査概要: 6

록 석축의 段數가 증가하여 동쪽 끝은 4단이 되게 하였다.

●小溝(SD060)

池에서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2m정도에서 남쪽으로 굽어져서 간선수로의 북쪽호안에 이르고 재차 서남쪽으로 굽어서 흐르게 되어 있으며, 간선수로를 매립한 위를 통과하여 그대로 서남쪽으로 뻗어서 발굴구역을 벗어난다.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蛇行하고 있다. 간선수로의 북쪽호안과의 교점을 중심으로 북부에서는 바닥을 河原石을 깔았으며 남부에서는 바닥에 돌을 깔지 않았다.

측벽은 河原石을 1단으로 세워서 늘어서게 하고 부분적으로는 작은 돌을 겹으로 쌓아서 상면의 높이를 가지런하게 하였다.

●돌바닥(SX065)

小溝의 양 호안에 접하여 10~20cm 크기의 河原石의 상면전체를 깔은 것이다. 돌바닥의 높이는 小溝의 側石상단과 일치하고 양자가 일련의 시설인 것은 분명하다. 돌바닥은 현 상태에서 小溝의 양 호안에 연하여 각각 남북 1m, 동서 50cm 정도의 극히 작은 범위밖에 남겨져 있지 않으나 본래는 보다 광범위하게 깔려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선수로(SD050)

간선수로는 연장 47km 사이에 서쪽끝이 동쪽 끝보다도 약 0.5m 낮아 물은 서북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양쪽 호안은 河原石으로 구축하였으나 바닥에는 돌을 깔지 않았다.

石組는 그다지 정연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는 2단 쌓기이다. 최하단의 돌은 가장 크고 길이 30~50cm, 폭 20~30cm의 河原石을 횡으로 길게 사용하고 내측에는 평탄한 면을 가지런하게 늘어서게 하였다.

2. 島庄遺跡 園池

1)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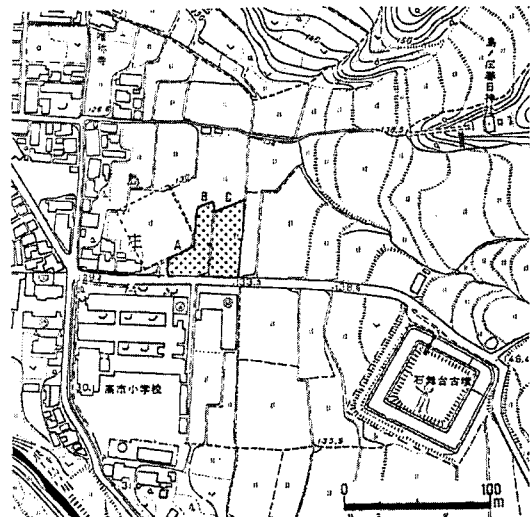
嶋宮遺跡은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島庄 164-1, 165-1, 祝戸 6-1 번지의 일대에 소재해 있으며, 원래는 백제인의 후손이면서 세력가이었던 蘇我馬子⁸⁾의 저택을 天武天皇의 아들인 草壁皇子의 궁(嶋宮)으로 사용한 곳이며, 일본의 현존 最古歌集인 「万葉集」의 낭만과 일본 古代政爭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다

2) 조성시기

「日本書紀」推古天皇 34年條 (626년)에 蘇我馬子の 저택정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과, 이 원지에 대한 발굴조사결과⁹⁾ 池에서 발굴된 유물로 보아 7세기 초두에 만들어졌으며, 매몰시기는 粘泥性이 높은 토사 퇴적상태로 보아 飛鳥~奈良시대사이에 연차적으로 매몰되었으며 그 상층에서는 平安末~鎌倉시대에 걸쳐진 유물이 일시에 퇴적되어 이 시기에는 완전히 폐절된 것으로 보여진다.

3) 형태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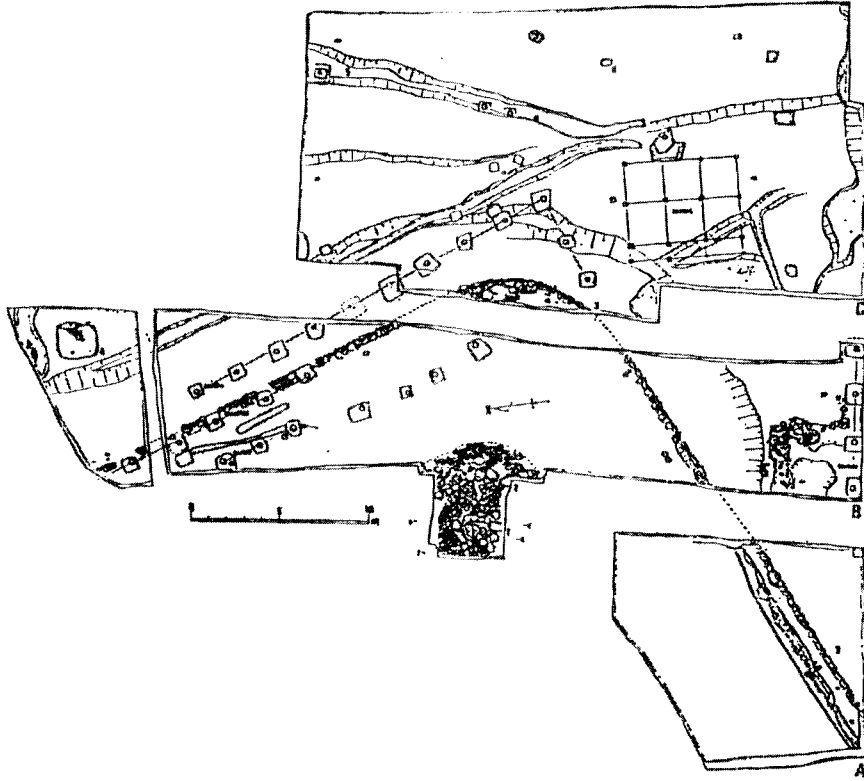
島庄遺跡의 嶋宮원지는 池中에 섬을 둔 정방형의 石組池로서 한변이 약 42m이고 가장 깊



(그림 3) 嶋宮遺跡園池(CA) 位置圖

8) 飛鳥資料館(1995), 蘇我三代, 飛鳥資料館 圖錄 第28冊 : 23~33

9)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81), 明月香村 飛鳥京跡 - 第71次~73次, および 嶋宮推定地 第16次 調査 : 183~191



(그림 4) 嶋宮의 園池遺構圖

은 곳은 2.5m에 이른다. 발굴 후 원상태로 복구하여 매몰하였다. (그림 3, 4)

4) 기능과 배치

嶋宮의 원지와 관련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日本書紀」推古天皇 34年條에는 蘇我馬子は 飛鳥川邊에 살면서 정원에 연못을 파고 못 가운데에 작은 섬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馬子를 「嶋의 大臣」이라고 불렀다' 라고 되어 있다. 辰斯王(391년)代의 원지(穿池造山)¹⁰⁾와 武王(634년)代의 궁남지(水中築島嶼)¹¹⁾의 경우와 같이 유사한 형태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능도 동일하게 향연 및 위락장소인 것으로 생각된다.

5) 조성방법

● 호안시설

池의 호안은 직경 50cm 정도의 자연괴석을 2단~4단으로 수직으로 쌓아서 구축하였으며 池의 바닥에도 20~30cm 크기의 괴석을 전체적으로 깔아 놓았다.

池의 주변에는 폭 10m의 제방이 둘러져 있고, 이를 池밖에서 보호하는 石垣列이 (그림 4)에서와 같이 B구역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연결되는 한 변과 A구역 남서에서 B구역을 비스듬하게 북동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한 변이 C구역에서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이어지도록 하였다. 원지 모서리 부분이 둥근현상은 定林寺址의 모서리가 반듯하지 않은 것¹²⁾과 유사하다.

특히 C구역의 둥근 모퉁이 부분과 B구역 북

10) 「三國史記」, 卷第25 百濟本紀 第3

11) 「三國史記」, 卷第27 百濟本紀 第5

12) 尹武炳(1987), 大餘定林寺址連池遺蹟發掘報告書, 忠南大學校博物館 : 7-8

쪽의 부분에서는 원래의 최상단 돌이 남아 있었는데 그 평균 높이는 80cm이고 30-40cm 크기의 돌로서 약 70° 정도의 경사로 3-4단 쌓여 있었으며 0.1-0.2m 크기의 돌로서 제방전체에 敷石을 시설하였다.

●수로시설

池의 用水를 위한 별도의 導水시설은 없고 池底에 설치된 우물의 湧水를 水原으로 이용하였으며 우물은 2×1.5m 크기의 부정형으로서 깊이 0.7-1m 지점에 암석이 있고 그 주위를 내려간 깊이는 1.5m로서 바닥의 깊이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3. 石神遺跡 園池

1) 위치

石神遺跡은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飛鳥ハリワケ 279-1번지의 일대에 소재해 있으며, 飛鳥寺 舊寺域의 서북쪽이고, 史跡 水落遺跡의 북쪽에 펼쳐져 있다.

石神遺跡은 齊明朝에 광대한 범위로 마련한,

성격이 각기 다른 구획으로 구성되어 향연에 따르는 다양한 기능을 맡고 있었던 지역이다¹³⁾.

2) 조성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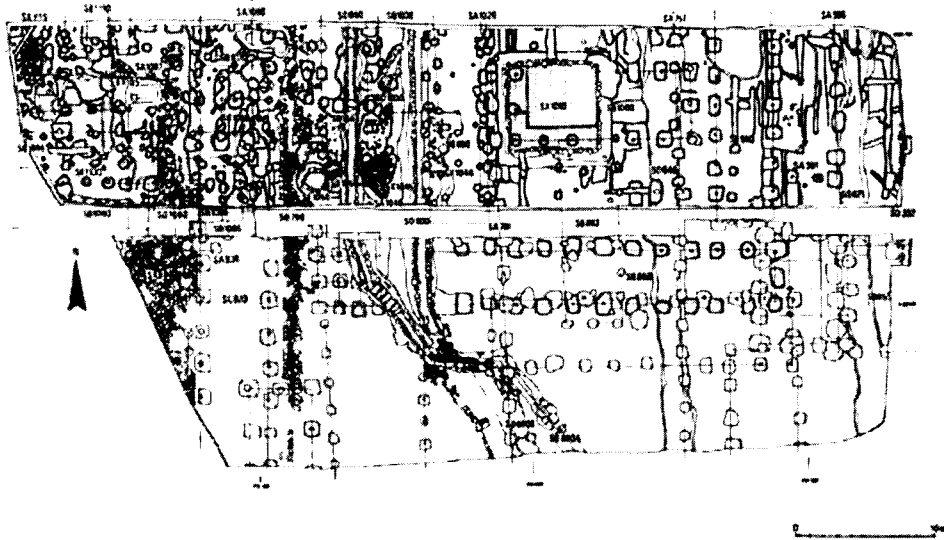
石神遺跡에서 발굴된 유구는 7세기 중엽에서 8세기 초두에 걸쳐 있으나 원지는 齊明朝(655-661년)에 해당된다. 매몰시기는 대량의 자갈에 의해 일시에 메워져 있고, 또한 池의 서쪽 및 북쪽에 걸쳐서는 7세기 중반에 정지작업을 한 토질이 있는 등 늦어도 7세기 후반대인 것으로 보인다.

3) 형태와 규모

석신유적의 원지는 한변이 6m이고 깊이가 0.8m인 正方形의 石組池(SX1010)이다. (그림 5) 네모 반듯한 윤곽은 泗時代 추정 왕궁지인 官北里 園池 경우¹⁴⁾와 동일하다.

4) 기능과 배치

池內에 장기적인 湛水를 나타내는 퇴적층이 없어 일상적인 관리가 완벽하게 행해진 시설이거



(그림 5) 石神遺跡園池(SX1010)遺構圖

13)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87), 飛鳥·藤原宮 發掘 調査 概報 17 : 59

14) 尹武炳(1987), 扶餘定林寺址蓮池遺跡發掘報告書, 忠南大學校博物館 : 7~8

나, 혹은 단순한 貯水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인 용도에 제공된 시설로 생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¹⁵⁾, 석신 유적지에서 발굴된 7세기 중반의 유구중에 굴곡하는 石組溝 및 돌이 바닥에 깔린 광장과 明治35년에 발견된 石人像¹⁶⁾과 須彌山石¹⁷⁾의 존재와 더불어 이들과 이웃해서 함께 배치되어진 石組池를 생각하면 齊明朝에 있어서 관광 및 향연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5) 조성방법

●호안시설

池의 측벽에는 河原石을 2~3段 중복하여 쌓고 네 모서리에는 立石을 얹혀 구조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이면에는 점토와 사질토를 版築형태로 互層으로 여러겹 쌓고 池의 바닥에는 점토를 깔고 그 위에 작은 돌을 깔아 놓았다.

●수로 시설

입·배수시설을 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원지와 동시대의 것으로 생각되는 시설이 원지부근에 있는 바, 원지에서 서쪽으로 약 11m 지점에 남북으로 놓인 暗渠(SD890)가 있고, 다시 石組小溝(SD1051)에 의하여 이것과 연결되는 石組우물(SE1050)이 원지의 서남쪽 약 14m지점에 위치해 있다.

4. 須彌山石

1) 위치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의 石神遺跡에서 石人像과 함께 明治시대에 출토되었다.

2) 조성시기

「日本書紀」에 의하면, 推古天皇 20년(612년)에 처음으로 路子工에 의해 須彌山이 등장

한 이후, 齊明天皇 3년(657년)에 須彌山像을 飛鳥寺의 서쪽에 만들었으며¹⁸⁾, 同王 5년(659년)에는 甘樺丘의 동쪽넷가에 須彌山을 만들고 陸奥와 越의 蝦夷를 환대하였다고 한다.¹⁹⁾ 또한, 同王 6년(660년)에는 石上池邊에 須彌山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廟塔과 같았으며 肅愼 47인을 환대하였다고 한다²⁰⁾. 이로 미루어 보면 須彌山은 推古天皇 이후 齊明朝 등 後代에 주요 정원시설물로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石神 遺跡에서 출토된 須彌山石은 齊明朝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²¹⁾ 7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형태와 규모

발견된 것은 3개의 돌덩어리가 수직으로 포개져서 전체 높이가 2.3m에 달하는 立石형태로 되어 있으나, 수미산석의 구조상으로는 4개의 돌덩어리로서 4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진다. (그림-6)

4) 기능과 배치

수미산석의 외부에는 수미산석이 백제인의 작품임을 느끼게 하는 백제의 山岳紋이 그려져 있고 수미산석 몸체의 사방에서 물이 분출되는 장치틀 해 놓은 것으로 보아, 수미산석은 일종의 정원내 점경물 및 분수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으로는 백제의 山岳紋이나, 수미산이라는 명칭에서 이미지를 전해 받는 것처럼 仙界 또는 淨土세계를 갈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수미산석은 석인상과 함께 각각 한번 6m의 不整形을 한 方形區劃이 있고 머리 크기의 옥석을 전체적으로 깔아 놓았다. 서쪽에는 수미산석, 동쪽에 석인상이 세워져 있는 것으

15)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87), 飛鳥・藤原宮 發掘 調査 概報 17 : 55

16)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75), 飛鳥資料館 : 23

17) 上掲書 : 24-25

18) 「日本書紀」, 齊明紀 3年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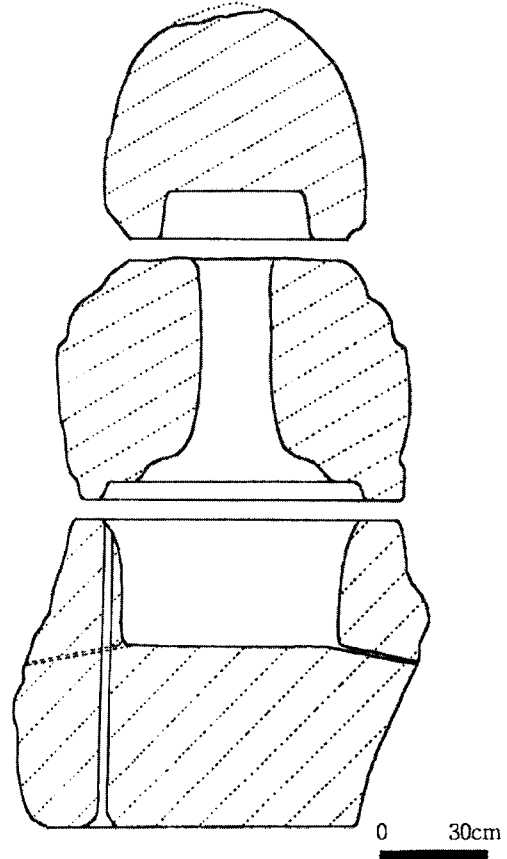
19) 「日本書紀」, 齊明紀 5年條

20) 「日本書紀」, 齊明紀 6年條

21)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75), 飛鳥資料館 : 24



(그림 6) 須彌山石의全景



(그림 7) 須彌山石의構造

로 추정되었다²²⁾. 이 구획지 주위에는 玉石組의 溝를 돌리고, 지형에서 보면 수로는 남쪽 飛鳥寺 방향에서 方形區劃의 6m 남쪽에서 西折하고 6m 정도를 재차 北折하여 석조물을 둘러싸는 형태이다.

溝는 폭, 길이 모두 약 1m, 측석은 큰 화강석을 늘어서게 하였으나 바닥에는 직경 약 0.2m의 하원석을 깔아 놓았다. 이 南北溝와 교차하는 東西溝는 동쪽 7m 위치에서 北折하고 동북방향으로 약 30m까지 확인되었다.

5) 조성방법

수미산석을 이루는 上·中·下 3개의 부분

은 각각 독립된 큰 화강암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개의 돌 모두 그 내부를 굴착하여 각각 빈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 공간이 서로 연결되도록 수직으로 포개 놓았다.

下石의 내부공간은 主貯水容器로 삼아 도수관을 下石 내부에 매설하여 바닥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저장하도록 하고, 수미산석의 몸체 사방에 吐水口를 설치하여 수압에 의해서 물줄기가 분출되도록 장치하였다.

中石은 下石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도 한개의 돌이 있는 것 같다²³⁾.

22) 猪熊寛勝(1976), 飛鳥·藤原の園池遺跡, 佛教藝術會編, 佛教藝術 : 35

23) 上掲書 : 25

IV. 결론

고대 조경양식인 백제정원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발굴사례와 관련문헌이 풍부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가 못하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백제정원 연구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제와 교류가 빈번하였던 일본의 고대정원 3개소와 정원시설물 1개에서 백제조경양식의 흔적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정원의 3개소중 鳴宮과 石神遺跡의 園池는 正方形이었으며, 이는 부여의 宮北里 園池, 公山城 方池, 定林寺址 園池, 彌勒寺址 園池, 東南里寺址 園池와 같은 方形池이었다. 국내에서는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方形池가 일반적으로 조성되어 왔으나 일본에서는 고대정원에서만이 드물게 발견되어지는 형태이다.

2. 小掣田宮 園池는 不定形池와 自然川을 모방한 S字 모양의 완만한 곡선을 小溝가 결합된 형태를 보였는 바,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上之宮 園池의 발굴자는 兩園池가 동일한 구조와 기능(祭祀의 場)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高瀬要一은 제사유적에서 보여지는 方形石組施設은 자연승배²⁴⁾의 일종으로서 생겨진 湧水에 대한 신앙이며 일본고유의 전통이라고 하였으나, 백제의 원시신앙에도 井泉신앙 내지 龍神신앙이 있었고²⁵⁾, 天地와 山川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있었으며²⁶⁾ 路子工이 作庭활동을 하던 동시대에 만들어진 推古天皇의 小掣田宮의 推定地이므로, 백제인의 감각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3. 鳴宮과 石神遺跡의 園池는 石組池이고, 小掣田宮 園池는 바닥은 무포장이 고호안과 溝는 石組로 되어있었다. 국내의 경우 못의 바닥에 돌포장한 경우에는 用水확보를 위한 貯水에 비중을 둔 원지(公山城의 圓形池·方形池)²⁷⁾와 石槽형태의 원지(東南里寺址 園池)에서 볼 수 있었으며, 호안석축은 대부분의 원지에서 볼 수 있었다.

특히 宮北里 園池에서 직방체에 가까운 할석을 5~6단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것은 鳴宮 園池의 돌 쌓는 수법과 공통적이다²⁸⁾.

4. 주요정원시설물로서는 石假山형태에 분수기능을 갖춘 須彌山石이 있었으며, 이는 仙界 또는 淨土세계를 상징하는 점경물로서 주로 향응 등의 위락장소에 배치되어졌다. 이것은 백제인 路子工이 推古天皇代에 처음으로 만든 이후 齊明朝 등 後代에 이를 모방하여 정원시설물로서 사용되어온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백제정원연구를 위한 국외사례발굴성격의 첫 시도이나 보다 많은 사례가 일본 내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백제정원 관련사례들을 더욱 많이 발굴해 내고 해석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 1) 高瀬要一(1995), 古代園池の立地と形態,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 9
- 2)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75), 飛鳥資料館 : 24
- 3) 上掲書 : 23
- 4) 上掲書 : 24-25

24) 高瀬要一(1995), 古代園池の立地と形態,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 9

25) 忠清南道(1995), 百濟의 歷史 : 60

26) 車勇杰(1994), 百濟의 崇天思想, 忠清南道, 百濟의 宗教와 思想 : 17-18

27) 公山城의 方形池의 성격에 대하여 결론이 유보되고 있으나 발굴조사자에 의하면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층위구조를 이루고 있고, 後代 유구의 하층에 백제시대의 유구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백제시대에 方形池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安承周(1984), 公洲 公山城에 대하여, 文化財 제17호, 102-114

- 5) 奈良 國立文化財 研究所(1976), 飛鳥·藤原宮 發掘調査報告Ⅰ, - 小墾田宮 推定地·藤原宮の調査 -, 奈良國立文化財 研究所 學報 第 27冊 : 19, 23
- 6)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81), 明月香村 飛鳥京跡 - 第71次~73次, および鳴宮推定地 第 16次 調査 : 183-191
- 7)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87), 飛鳥·藤原宮 發掘 調査 概報 17 : 55
- 8) 上掲書 : 59
- 9) 飛鳥資料館(1991), 飛鳥の源流,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 18
- 10) (財)樓井市文化財協會(1990), 上之宮遺跡第5次調査概要 : 6
- 11) 飛鳥資料館(1995), 蘇我三代, 飛鳥資料館 圖錄 第28冊 : 23-33
- 12) 飛鳥資料館(1995), 蘇我三代,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 36
- 13) 「三國史記」, 卷第25 百濟本紀 第3
- 14) 「三國史記」, 卷第27 百濟本紀 第5
- 15) 安承周(1984), 公州 公山城에 대하여, 文化財 제17호, 102-114
- 16) 牛川喜幸, 古代庭園の遺構·平面圖 : 119
- 17) 尹武炳(1987), 夫餘定林寺址蓮池遺蹟(發掘報告書, 忠南大學校博物館 : 7-8
- 18) 尹武炳(1985), 夫餘官北里百濟遺蹟發掘報告(1), 忠南大學校博物館 : 9-10
- 19) 「日本書紀」, 推古天皇 二十年條
- 20) 「日本書紀」, 齊明紀 3年條
- 21) 「日本書紀」, 齊明紀 5年條
- 22) 「日本書紀」, 齊明紀 6年條
- 23) 猪熊兼勝(1976), 飛鳥·藤原の園池遺跡, 佛教藝術會編, 佛教藝術 : 25
- 24) 上掲書 : 35
- 25) 忠淸南道(1995), 百濟의 歷史 : 60
- 26) 車勇杰(1994), 百濟의 崇天思想, 忠淸南道, 百濟의 宗教와 思想 : 17-18
- 27) 坂本太郎, 家永三郎, 井上光貞, 大野晋 校註(1967), 日本書紀 上, 岩波書店 : 360
- 28) 환경과 조경 (1993), 특집/조경, 전통과 창조, 환경과 조경, 39 : 44 - 79